

## HEADLINE NEWS

### 주택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New VIP」 추진 (뉴욕)

미국 뉴욕시는 5개 자치구에 대대적인 신규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기존 주택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 「New VIP: New Ventures Incentive Program」을 최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 전역에 30억달러를 투입하여 65,000개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개발·보전하고, 특히 도시의 버려진 공업용지 중에 주거용지로 적합한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Citibank, JPMorgan Chase 등의 금융기관과 뉴욕시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환경적으로 폐기된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저소득층, 중하류 소득계층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1만 세대를 조성해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 주택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용토지의 부족과 적정가격 주택건설의 기회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6,950개의 건설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주택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www.nyc.gov](http://www.ny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nyc.gov/portal/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http://www.nyc.gov/portal/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통한 도시활성화 추진 (오코하마)
- ② 개성있고 세련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동경)

### 도시환경

- ③ 시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소비 지침서 발간 (바르셀로나)
- ④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대기질 개선 전략 추진 (새크라멘토)
- ⑤ “디젤차량 운행규제 이후 대기오염 저감돼” (동경)
- ⑥ 재활용 촉진 위해 폐기물관리의정서 제정 (뉴질랜드: 카이코우라)

### 도시교통

- ⑦ 단순화된 대중교통 요금체계로 개편 추진 (오리건주: 포틀랜드)
- ⑧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해 이용률 낮은 환승주차장을 복합용도로 개발 (플로리다주: 포트러더데일시)
- ⑨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 권고법안 마련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시)
- ⑩ 불법 노상주차 예방 위해 30분 미만의 주차요금 무료화 추진 (동경)

### 사회복지문화

- ⑪ 홈리스문제 조기해결 위해 홈리스 자립지원계획 수립 (오사카)
- ⑫ 홈리스 주거지원용 숙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박소 가이드라인」 개정 (동경)

### 행재정

- ⑬ 광역 긴급상황 관리센터 개소 (캐나다: 에드먼턴시)

### 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통한 도시활성화 추진 (요코하마)

최근 일본 요코하마市の 자문위원회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통한 도시활성화 검토위원회’는 옛 거리 경관이 남아있는 馬車道지구를 예술가를 위한 장소로 조성하고, 미나토미라이 지구에 정보문화산업을 유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市에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구 第一은행 등 역사성 있는 거리 경관이 남아있는 馬車道역 부근에 관한 계획은 건물과 창고의 개보수비를 보조하고, 예술가가 창작 활동과 작품 발표에 사용하는 아틀리에와 스튜디오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도 보조해 그 부근을 예술가가 모이는 ‘창조의 거리’로 조성한다.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는 세금 감면 등을 활용하여 영상·연극계열 대학과 극장 등 市の 정보 문화산업의 중심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에 지원금을 보조할 계획이다.

(mytown.asahi.com/kanagawa/news02.asp?kiji=4984)

### ② 개성있고 세련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동경)

일본 東京都는 현재 ‘동경의 세련된 가로(街路) 조성 추진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의욕과 참여를 유도해 개성있고 세련된 가로경관을 가꾸기 위한 것으로, 「가구재편(街區再編)마찌즈쿠리제도」와 「가로경관(街路景觀)즈쿠리제도」로 구성된다. 「가구재편(街區再編)마찌즈쿠리제도」란 밀집시가지 등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여 가로 단위의 지역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인접한 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이 소단위로 합의를 형성하여 마찌즈쿠리를 추진할 경우,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용적률·사선제한·접도조건 등을 완화해 주어 소필지의 통합, 협소한 가로에 면한 건물의 갱신 등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 재건축 등을 유도해 가로를 재편해가는 것이다.

한편, 「가로경관(街路景觀)즈쿠리제도」는 역사문화적으로 특색이 있는 가로, 간선도로변, 대규모 개발이 시행되는 지구 등을 가로경관중점지구로 지정한 후, 지역협의회가 건물의 배치, 색, 디자인, 광고물 등에 관한 가로경관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 매력있는 가로경관의 형성을 유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www.toshikei.metro.tokyo.jp/seisaku/fop\_town)

### 3] 시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소비 지침서 발간 (바르셀로나)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의회,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소비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에는 어떤 종류의 가전제품이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지, 물을 적게 쓰는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방출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래 사용하는 방법, 에너지와 물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 등의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절수기물을 40% 절약할 수 있는 절수장치나 일반적인 전구보다 5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가구는 열대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산림보호협회의 보증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세탁기는 에너지효율 AAA 등급(물-에너지-세제 3가지가 모두 A등급)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www.bcn.es/english/ihome.htm](http://www.bcn.es/english/ihome.htm))

### 4]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대기질 개선 전략 추진 (새크라멘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약 90%는 연방정부 및 주의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존 오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대기관리국은 정부에서 설정한 오존오염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추진을 위해 시민·기업·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최근 개최했다.

특히,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한 청정 대기질 유지 전략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규 및 운행차의 새로운 배출허용기준 검토, 청정 휘발유 사용과 증발배출량 회수, 경유엔진의 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관련제품의 소비 억제 및 건축코팅과 솔벤트의 사용 자제, 환경친화적 소비 및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www.arb.ca.gov/newsrel/nr011504.htm](http://www.arb.ca.gov/newsrel/nr011504.htm))

### 5 “디젤차량 운행규제 이후 대기오염 저감돼” (동경)

일본 東京都 환경국은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젤차량의 운행규제 이후 대기오염상태를 최근 조사한 결과, 그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상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상8호선 자동차 전용터널에서 시행되었다. 그 결과 디젤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카본(EC)과 3종류의 발암성 물질농도가 디젤차량을 규제하기 2년 전의 수치에 비해 카본(EC)은 49%, 3종류의 발암성 물질은 28~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교토 대학 교수팀이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슷한 저감률을 보여,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가 대기오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都는 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입자물질이 암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都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디젤차량의 운행을 규제해오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CHOUSA/2003/12/60dcj400.htm](http://www.metro.tokyo.jp/INET/CHOUSA/2003/12/60dcj400.htm))

### 6 재활용 촉진 위해 폐기물관리인정서 제정 (뉴질랜드: 카이코우라)

뉴질랜드 카이코우라 지역의회는 폐기물관리의정서를 제정하여 사업장들이 재활용품 분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의정서는 사업장 지역의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의정서에 명시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로부터 현장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의서를 작성할 때 의회는 사업주에게 폐기물정책방향과 현장에서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게 된다. 사업주는 소형 분리함을 현장에 설치하고 폐기물을 유리, 플라스틱 용기, 골판지, 금속, 목재 등으로 분리한다. 현재는 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의 90%를 재활용했다. ([www.zerowaste.co.nz/](http://www.zerowaste.co.nz/))

### 7] 단순화된 대중교통 요금체제로 개편 추진 (오리건주: 포틀랜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TriMet'는 곧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작업은 현재 구역 요금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충전식 대중교통카드와 같은 새로운 요금지불방법 도입, 환승할인대상 유효시간 정규화 및 승차권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재 21개인 승차권 운임 종류를 금년 내에 16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이동구간 및 이용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해오던 요금체계가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승차권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역 요금제의 경우 부과된 요금이 실제 이동거리와 맞지 않으므로 거리에 따른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유효시간 등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현재보다 3배 큰 승차권을 발행하여 경전철에서 버스로 환승시 환승할인의 혜택이 오용되는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www.oregonlive.com/news/oregonian/index.ssf?/base/news/1072357223198290.xml](http://www.oregonlive.com/news/oregonian/index.ssf?/base/news/1072357223198290.xml))

### 8]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해 이용률 낮은 환승주차장을 복합용도로 개발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시)

미국 플로리다주 Miami~West Palm Beach간을 운행하는 통근열차 Tri-Rail의 이용률이 낮은 일부 환승역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다. 포트로더데일(Fort Lauderdale)시에 있는 5개역 환승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은 이용률이 낮은 환승주차장을 혼합용도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각 역사 특성에 맞게 업무·상업·숙박·교육·체육·주거시설 등을 혼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지역에는 질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요금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www.smartgrowth.org/news/printerfriendly.asp?art=3789&state=10](http://www.smartgrowth.org/news/printerfriendly.asp?art=3789&state=10))

### 9]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 권고법안 마련 (노스캐롤라이나주: 콜리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교통사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Quick Clearance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부상자가 없고 사고피해가 경미할 경우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도로상에서 치워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법안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이며, 관계당국은 점차 이 법안의 실효성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www.wral.com/traffic/2735144/detail.html](http://www.wral.com/traffic/2735144/detail.html))

### 14] 불법 노상주차 예방 위해 30분 미만의 주차요금 무료화 추진 (동경)

일본 東京都는 (재)동경도주차장공사가 운영하는 도청전역(都廳前驛) 주차장 등 6개소의 주차장에서 30분 미만의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는 都와 경시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통정체대책인 「스무드 동경 21: 확대작전」의 일환으로, 불법 노상주차 예방대책이면서 동시에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러한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노상주차의 50% 이상이 30분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노상주차의 변화와 주차장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재)동경도주차장공사의 ‘노상주차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승용차의 노상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비율은 평일에 약 60%, 휴일에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www.metro.tokyo.jp](http://www.metro.tokyo.jp))

### ④ 홈리스문제 조기해결 위해 홈리스 자립지원계획 수립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현재 홈리스문제의 조기해결을 목표로 2004~2008년 시행할 예정으로 市홈리스 자립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市는 현재 홈리스 자립지원계획초안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모집하는 퍼블릭 커멘트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市에서는 홈리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센터 정비·운영과 순회상담사업, 특정 공원내 가설일시피난소 정비·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해 왔다. 최근 전국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홈리스 수는 25,296명, 그 중 오사카市에는 6,603명이 있다. 市건강복지국은 홈리스의 자립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초안에 대한 퍼블릭 커멘트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2004년도 3월에는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www.city.osaka.jp/kenkoufukushi/public/homeless/index.html](http://www.city.osaka.jp/kenkoufukushi/public/homeless/index.html))

### ④ 홈리스 주거지원용 숙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박소 가이드라인」 개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홈리스 주거지원용 숙소 운영의 적정화와 주거환경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숙박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都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환경의 개선, 자립지원대책, 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서 개선과제가 제시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면에 관한 기준으로, 생활방의 면적은 수납설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3.3㎡를 최소 기준으로 하여, 1인당 4.95㎡ 이상이 되도록 정비한다. 또한 독실은 4.95㎡ 이상으로 하며, 경질(硬質)의 벽으로 구분하고, 채광, 조명, 환기 등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도록 정비한다. 둘째, 운영면에 관한 기준으로, 적절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또한, 각 시설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보고 혹은 공개한다. ([www.fukushi.metro.tokyo.jp/press\\_reles/2004/pr0107a.htm](http://www.fukushi.metro.tokyo.jp/press_reles/2004/pr0107a.htm))

### 광역 긴급상황 관리센터 개소 (캐나다: 에드먼턴市)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Edmonton)市는 향후 발생가능한 자연재해 및 주요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mergency Management Alberta Operations Centre'를 최근 개소하였다. 1,400만달러를 투자한 이 긴급 상황 관리센터는 자연 재해, 주요 공공서비스 유지 및 대(對)테러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지역전체에 걸쳐 대처방안의 통합 관리 및 조정기능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각종 첨단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이를 통해 문제발생지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경찰, 소방서, 구급차 및 지역내 공무원 등과 협조 체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러한 재난 관리센터는 캐나다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www.gov.ab.ca/acn/200312/15662.html](http://www.gov.ab.ca/acn/200312/15662.html))